

# 미적대던 5·18진상조사위 구성 이달말까지 마무리

### 민주당 위원 추천 TF팀 구성 상임·조사위원 4명 검증 나서 미래·한국당 위원 추천 조율 일정 촉박 부실 검증 우려도

이달 말에는 여야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1일 민주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장은 진선미 의원이, 간사는 송갑석 의원이 맡는다. 여기에 민홍철, 김민기, 인제근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에게 부여된 추천 몫은 상임위원 1명에 조사위원 3명 등 총 네명이다. 민주당은 TF팀의 검증 등을 통해 이번 달 내에 조사위원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송갑석 간사는 "진상조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상임위원 배정 문제를 놓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야당 몫으로 4명이 배정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자신들이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

유한국당은 제1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 의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번 달 내에는 진상조사위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만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를 마칠 생각"이라며 "이후 조사위원 선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화당은 진상조사위원으로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상황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여야 1명씩 추천한다. 조사위원은 비상근으로 급수는 없다.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물론 시행령 마련 등에도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활동하며 최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다음 달 14일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 추천이 막판에 이뤄지면서 정상적인 출범 및 활동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조사관 채용과 사무처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 개월 전에 조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의 의



바른미래, 국방부 현안 검토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주최 '국방부 주요 현안 점검 및 개선방향 검토'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견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21일 조사위에 참여할 조사위원 추천을 4월 30일까지 해달라는 공문을 국회로 보냈었지만 정치권은 추천을 외면해 왔다.

한편, 차관급인 상임위원과 장관급인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일부 인사들의 물 밑 경쟁도 이어지고 있어 진상규명보다는 잣대에 신경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평화당 전대, 흥행 저조에 투표율 비상

### 첫 날 투표율 10% 턱걸이 당권주자들 투표 참여 호소

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5 전당대회 전당원 온라인투표 첫날 투표율이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평화당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시작된 온라인투표의 오후 6시 현재 투표율은 약 7.7%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당원은 9만 360명으로, 스마트폰을 보유한 당원 중 6312명이 투표를 마쳤다.

당 관계자는 "저녁이 되면서 투표율이 갑자기 오르고 있다"며 "오늘 밤까지 투표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무난히 10%는 넘

어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 시스템(K-voting·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는 2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케이보팅에 응답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는 3일부터 이틀 동안 ARS 투표가 예정됐고,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된다.

창당 후 처음 치러지는 전당대회지만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데 실패하면서 당 안팎에선 투표율이 20%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전당대회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이날 오후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최경환 의원은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바라는 당원들의 기대가 담긴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평화당이 과거로 돌아가서 없어지느냐. 밝은 미래로 나아가느냐가 걸린 중요한 선거"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정동영 의원은 "평화당의 생사가 당원들의 투표 참여에 달려있으니 남은 기간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당내 인사들도 온라인투표 홍보에 나섰다. 박지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방금 투표했다"며 "투표하면 평화당이 살아나고, 평화당이 살아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견제해지지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청와대 "8월 남북정상회담 관련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

###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것"

청와대는 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가을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8월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과 관련,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8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까지 얘기된 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문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며 "양측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개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후속조치, 종전선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이라서 8월 말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굵직한 외교 행사가 줄줄이 열린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11~13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리고 중순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열린다. 다음달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국제 행사 등에 밀려 회담 주목도가 격하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8·15 특별사면설과 관련,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6444명을 대상으로 첫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지그재그 넝쿨가지 박자 맞춘 듯 경쾌하구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33) 포도씨앗의 사랑

사랑하는 남자가 포도를 먹는다. 포도씨앗을 뱉지 않고 입안에 모아두었다가 서로의 얼굴에 포도씨앗을 뱉으며 행복하게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본 소년이 엄마에게 흉내 내어 포도씨앗을 뱉었다가 등짝을 칠 것 두들겨 맞는다. 진정된 사랑의 유희를 이해받지 못한 소년의 슬픈 이야기는 작가 임철우의 소설 '포도씨앗의 사랑'의 중요한 모티브였다.

포도를 먹거나 포도그림을 볼 때마다 '포도씨앗의 사랑'이 떠오르곤 한다. 요즘에야 씨 없는 거봉포도, 청포도, 적포도가 우리 입맛을 지배하고 있지만 나에

게 포도는 알 굵은 송이가 정정당당하게 붙어있고 당도 높은 캄캄포도가 최고다. 포도씨앗이 위를 자극해서 운동이 되게 함으로 건강에 좋다는 믿거나말거나 한 속설을 믿은 까닭에 포도씨앗을 뱉지 않고 언제나 포도알과 함께 삼키지만 간혹 포도씨앗을 입 안 가득 모아두었다가 허공에 뱉으면서 '푹! 하고 웃음 짓는다. 아름답고 순수한 포도씨앗의 사랑을 흉내 내고 싶은 소년을 나도 따라 하고 싶은 것이라.

직현 허탈재 작가(1952~ )의 작품 '포도' (2018년 작)는 전통적인 목포도도의 근엄함 보다 추상회화로 보이는 세련된 화면이 위트 있게 다가온다. 화면 가득 먹의 농담의 변화로 포도알과 이파리가 섬세한 붓질로 묘사되고 위에서 아래로 뻗어 내려가는 포도 넝쿨가지는 지그재그로 박자를 맞춘 듯 경쾌하다. 화선지에 우리 전통 북종화에서처럼 예닐곱 차례의 얇은 채색을 한 후에 수묵으로 그림을 그려 전체적인 정취나 분위기가 요즘 감각을 리드할 만큼 현대적이어



허탈재 작 '포도'

서 문인화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마음이 그림을 닮고 그림이 마음을 닮는 사의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직현은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1896~1977)의 손자이자 제자로 의재가 추구했던 동양적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되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예술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찬탄을 받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 농촌의 새로운 희망



###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 신세계안과

#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